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24일(수)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미래산업과	담당자	• 바이오산업팀장 이규석 ☎440-3101 • 담당자 김금옥 ☎440-310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아시아 백신 허브로의 도약

-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 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공청회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24일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 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2021년도 상향식 다부처공동 기획연구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국회의원, 2개 시도와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KISTEP 다부처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다부처공동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동기획연구 충실성 확보를 위해 정일영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가 공동주최했다.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 신약설계 및 최첨단 단백질 구조 결정 장비인 Cryo-EM(초저온 전자 현미경) 기술을 결합해 국내 단백질 및 합성 신약개발 중소, 벤처 회사의 신약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한 사업이다.

초기 기획은 과기정통부의 용역으로 포항공대에서 수행해 기획한 결과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경북의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또한 본사업의 파트너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를 중심으로 분자설계연구소, (주)바오밥에이바이오 및 주변의 연구 인력들이 참여하며 인천시가 지원을 하는 구도이다.

초저온 전자 현미경과 컴퓨터 신약 설계는 이번 코로나 19 긴급상황을 맞아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현재 초저온 전자 현미경 및 신약 설계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포항공대와 연세대 송도 캠퍼스가 대표적이다.

정일영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의 축사로 포문을 연 이날 공청회는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 신속대응’을 주제로 포스텍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이지오 교수가 먼저 발표했다.

다음으로 ‘구조-분자설계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주)바오밥에이바이오 노경태 대표가 발표했으며, 이지오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했다.

이어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발굴 시스템’을 주제로 전영호 고려대 약학대 교수와 한균희 연세대 약학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으며,

‘구조-분자 설계 기술의 산업체 응용’을 주제로 손문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장과 노경태 (주)바오밥에이바이오 대표가, 그리고 ‘미래 감염병 백신개발 전략’을 주제로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과 한진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인천은 지난 7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유치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치료제 및 신약개발 창업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 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내 신약개발 벤처들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신약후보 물질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며, “K-바이오 랩허브와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인천이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3:30)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